

# 한반도 첫 수도 고창소식

04  
2022  
제 481호



발행처 고창군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전화 063.560.2327  
FAX 063.560.2259 홈페이지 <http://www.gochang.go.kr>

고창군에서 매월 발행하는 군정 소식지로 누구나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가 변경되거나 구독을 원하지 않으시면 연락 주세요. (063.560.2327)  
'고창소식' 이젠 스마트폰에서 보세요. (고창군 스마트알리미 어플 무료로 다운)

## 제1회 고창신재효 문학상 당선작

## ‘금파\_조선의 마지막 소리’ 출간

제1회 고창신재효문학상 수상작 ‘비비각시’가 ‘금파, 조선의 마지막 소리(다산북스)’로 이름을 바꿔 출간됐다. ‘금파’는 김해숙 작가의 소설로 동리정사 출신 여성소리꾼 ‘허금파’의 이야기다. 진채선에 이어 여자판소리 명창의 선구자로 알려진 허금파라는 개성적 인물을 강렬하게 창출해내 지역의 자랑인 ‘소리’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잘 녹여냈다는 심사평을 받았다.



김해숙 작가

“시조창을 하셨던 아버지와 100년 전 예술가로서의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 허금파가 있어 작품이 나올 수 있게 됐다. 앞으로 더욱 생명이 긴 소설들을 써서 고창신재효문학상 수상에 보답하겠다”

\* 출판사 다산책방 김선식 대표도 고창군 부안면 출신이다.



# 운곡마을, 과연 생태문화 관광수도 고창 이어라! 유엔세계관광기구 최우수관광마을 기념패 수상

## 본격적인 최우수관광마을 세계네트워크 활동 개시

고창군 운곡마을이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로부터 '세계최우수관광마을(Best Tourism Village)' 선정 기념패를 전달받았다. 기념패는 지난해 12월2일 세계관광기구로부터 최우수관광마을에 선정된 세계 32개국 44개 마을에 세계관광기구가 전달하는 패로, 44개 마을 중 하나로 선정된 운곡마을에도 국제우편을 통해 기념패가 전달됐다. 기념패는 최우수관광마을 로고를 형상화해 제작됐고, 운곡마을(Ungok Village)라고 새겨져 있다.

운곡마을은 오는 31일 열리는 세계최우수관광마을 네트워크 첫 온라인 미팅의 참석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네트워킹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고창운곡습지생태관광협의회 조용호회장은 "특별한 기념패까지 받으니 감회가 한층 새롭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을 보여주는 고인돌·운곡마을은 지속가능한 관광문화에 앞장서 국제적으로 소중한 자원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 고창갯벌 오토캠핑장, 본격 봄 손님 맞이



서해바다와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창갯벌 오토캠핑장'이 본격적인 관광객 맞이에 나섰다. 고창갯벌 오토캠핑장은 데크 25면과 글램핑장 9개소, 샤워실, 탈의실, 공중화장실, 개수대, 물놀이 시설, 트램펄린, 갯벌 생태 자전거 탐방로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운영 중에 있다. 또 글램핑장이 조성된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인근에는 고창람사르갯벌센터, 구시포해수욕장, 바람공원, 동호해수욕장 명품 숲길 경관조명 등 고창의 여러 관광지들이 밀집해 있어 캠핑뿐만 아니라 다양한 볼거리를 즐길 수 있다.

고창군청 해양수산과 홍만수과장은 "고창 갯벌 오토캠핑장에서 가족·연인·친구와 함께 볼거리·먹거리를 즐기며 좋은 추억을 쌓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_고창갯벌 오토캠핑장(스마트콜 : 0507-1459-5206)

## 동서남북 어디서든 15분 이내 배달가능 북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4월 본격 운영

### 흥덕, 성내, 신림, 부안 지역 농민들 관심집중!!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북부권에서도 문을 열었다. 이달부터 본격 운영되는 북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흥덕, 성내, 신림, 부안 지역 농민들의 새해 풍년 농사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북부권 임대사업소는 효율적인 농작업 지원을 위해 36억원을 들여 흥덕면 동사리 부지(7680㎡)에 지난해 9월 착공해 7개월여 만에 준공했다. 농기계보관창고, 콩선별장, 세척시설 등이 새로 들어섰고, 임대장비는 트랙터, 농업용굴착기, 관리기 등 총 54종 155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북부권 임대사업소 운영으로 고창농민들은 동서남북 어디서든 15분이면 농기계를 집 앞까지 배달 받을 수 있게 됐다.

임대사업소 홈페이지 : <http://gochang.amlend.kr/>



- ※ 문의 · 본소(560-8847, 고창읍 중거리당산로94)
- 서부권(560-8860, 해리면 동시길15)
- 남부권(560-8557, 대산면 칠거리로 411-7)
- 북부권(560-8536, 흥덕면 동사리 156-1)

※ 코로나19극복 임대료 인하 : 2020. 4. 1 ~ 2022. 6. 31

※ 사용 14일전 ~ 사용전일 까지(배송서비스 예약 : 3~4일전 까지)



# 고창지역 임산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및 마스크 지급



코로나19확산 방지와 임산부·태아의 감염예방을 위해 임산부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신속항원 자가검사키트와 마스크를 지원하고 있다. 임산부 1인당 5주간 주1~2회 사용가능한 10개의 신속항원 자가검사키트와 마스크를 지급받게 되며, 수령을 원하는 임산부는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직접 방문시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등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과 함께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가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경우에는 비닐봉투에 밀봉한 자가검사키트를 가지고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PCR검사를 받으면 된다.

문의\_고창군보건소 모자보건실(560-8762)

## 5~11세 어린이 코로나19 백신 기초접종 시작

고창군에서 5~11세 어린이의 코로나19 기초접종이 3월31일부터 시작됐다. 접종대상은 2010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는 아이부터 2017년생 중 생일이 지난 아이까지 해당되며 1차접종 8주 후에 2차접종을 한다.

사전예약 누리집(ncvr.kdca.go.kr)이나 콜센터(560-8569,8570)를 통해 예약 후 고창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소아용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받게 된다. 보호자나 법정대리인 동반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외 18세 이상 성인의 기초접종 미접종자와 의학적 소견으로 접종을 하지 못했거나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2차, 3차 접종을 하지 못한 분들은 노바백스 백신으로 접종이 가능하다. 고창군 유병수 보건소장은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에도 코로나19 백신접종은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수단이다”며 “특히 소아에서도 고위험군의 경우 접종이 중요하므로 적극 접종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문의 : 고창군 코로나19 콜센터 560-8570



3

고창군

신속항원검사 받은 곳

### 우리동네 근처는 어디일까?



#### > 고창군 호흡기 진료 지정의료기관

| 연번 | 의료기관명      | 주소                   | 연락처      |
|----|------------|----------------------|----------|
| 1  | 석정웰파크병원    | 고창읍 석정2로 147         | 560-1000 |
| 2  | 신재활의학과의원   | 고창읍 중앙로 230          | 561-0475 |
| 3  | 김이비인후과의원   | 고창읍 중앙로 224          | 561-4769 |
| 4  | 정내과의원      | 고창읍 중앙로 220          | 563-3054 |
| 5  | 조갑호의원      | 고창읍 중앙로 191          | 561-3270 |
| 6  | 십자의원       | 고창읍 중앙로 46           | 561-5552 |
| 7  | 이진홍내과의원    | 고창읍 중앙로 230          | 564-1343 |
| 8  | 고창미래의원     | 고창읍 보릿골로 115,4층 401호 | 564-1343 |
| 9  | 강신녕가정의학과의원 | 고창읍 중앙로 206          | 564-1343 |
| 10 | 현대의원       | 해리면 남시길 5            | 563-6035 |
| 11 | 제일가정의학과의원  | 대산면 대성로 238          | 561-3302 |
| 12 | 대산연합의원     | 대산면 대성로 227          | 563-5639 |
| 13 | 이형석의원      | 대산면 대성로 233          | 564-9011 |
| 14 | 서울가정의원     | 흥덕면 문화길 5            | 564-6269 |
| 15 | 우리의원       | 부안면 복분자로 899         | 564-7227 |



# 군민에게 힘이 되는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회

## 고창군의회 제287회 임시회 개회

고창군의회가 4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87회 고창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의안을 심의·의결하고,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에 걸쳐 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을 현장 방문하여 각 과·관·소장으로부터 사업 설명을 듣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군의장은 “이번 현장방문 시 추진 중인 사업과 정책들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군민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예산낭비가 되는 사례가 없는지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 제287회 임시회 의사일정

| 일 정                     | 차수    | 장 소   | 의 사 일 정  |
|-------------------------|-------|-------|--|
|                         |       |       | 개 회  |
| 4. 13.(수) 10:00         | 1차    | 본회의장  | 1. 회기 결정의 건<br>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br>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br>4.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의 건<br>5. 휴회의 건 |
|                         | 11:00 | 상 임 위 | 1. 의안 심사   |
| 4. 14.(목) 10:00         | 휴회    | 현 장   | 1. 주요사업장 방문  |
| 4. 15.(금) 10:00         | 휴회    | 현 장   | 1. 주요사업장 방문  |
| 4. 16.(토)~<br>4. 17.(일) | 휴회    |       | 자료수집 및 정리  |
| 4. 18.(월) 10:00         | 휴회    | 현 장   | 1. 주요사업장 방문  |
| 4. 19.(화) 10:00         | 휴회    | 현 장   | 1. 주요사업장 방문  |
| 4. 20.(수) 10:00         | 휴회    | 현 장   | 1. 주요사업장 방문결과 정리   |
| 2. 25.(금) 10:00         | 7차    | 본회의장  | 1. 의안 심의<br>2. 주요사업장 방문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                         |       |       | 폐 회  |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위촉



고창군의회가 지난 3월 17일 군의회 의장실에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김미란 의원(대표위원)과 김수영, 김영환, 염윤철, 박호인 등 경험이 많은 민간 전문가 4명을 포함하여 총 5명이다. 결산검사위원은 3월 17일부터 4월 5일까지 20일간 고창군의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 등 예산집행 전반에 대해 건전성과 효율성을 검사하고 분석해 감사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며, 결산 결과는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절차를 거치게 된다.

군의장은 “결산 검사는 예산의 편성 못지않게 중요한 과정”이라며,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적법하게 집행됐는지,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된 사례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 건전한 재정운영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날 김미란 대표위원은 “엄격한 기준으로 재정운영의 적법성, 예산의 낭비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해 예산편성 및 집행에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문화와 역사는 상품이다.

이성수

소설가/고창문화관광재단이사



플라톤은 시인을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실이 아이디어의 그림자인데, 시는 현실의 그림자라서 쓸모가 없다 했다. 하지만 세상은 그의 주장대로 움직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경멸하던 극작가 소포클레스에 의해 아테네

페리클레스 시대가 열리고, 보카치오, 미켈란젤로 등의 노력으로 르네상스 시대가 열렸다. 이를테면 현실의 그림자인 문화와 이성이 동행하며 역사를 발전시켜왔다. 문화는 이성과 달리 감성을 수반한다. 현실 속에서 상상을 보고 상상 속에서 현실을 보는 다면적 사고와 시선을 가진다. 대개 문화는 생업과 동떨어졌다고 생각한다. 먹고 살기에 바쁜데 웬 문화 타령이냐는 비아냥도 있다. 한편으로 맞는 말이기도 하다.

필자가 오스트리아를 여행한 적이 있다. 일방통행로인 시골 마을 길을 50여 미터나 거슬러 걷고 있었다. 물론 중앙선이 그어지지는 않았으나 승용차가 교행해도 될 만큼 충분히 넓은 도로다. 그런데도 전방의 승용차들이 줄지어 멈춰서 있었다. 미안한 마음으로 도로가장자리로 후다닥 비켜섰다. 지나가라며 손짓했다. 그런데도 그러는 우리를 오히려 염려하듯이 바라보았다. 우리가 일방도로를 안전하게 벗어나자 승용차가 움직였다. 우리나라였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누구나 비슷한 장면을 떠올릴 것이다. 지금도 그들의 모습을 떠올리면 기분이 좋다. 나를 정화 시키는 기분이다.

오스트리아 하면 떠오르는 것이 많다. 대개는 음악가 모차르트, 알프스산맥의 경치와 맑은 호수. 수준 높은 음악과 미술의 세계. 탄성을 자아내는 아름다운 궁전. 들으면 들을수록 교훈이 되고 길잡이가 되는 역사도 떠오를 것이다. 하지만 필자의 경우는 다르다. 먼저 당시의 운전자들이 보여주던 태도와 마음이 떠오른다.

우리 고창에도 느끼고 보고 즐기며 맛볼 거리는 무수히 많다. 풍천장어와 복분자 등 농수축산물, 새롭게 조명되는 고인돌 문명과 문화.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의 보전, 운곡습지, 희귀한 고창 천연갯벌, 동학농민혁명과 항일의병의 역사, 신재효와 판소리, 고창 농악, 6차 산업과 청보리밭, 모양성과 답성놀이, 선운사의 수려한 경치, 봉덕리 고분, 무장읍성 등 수많은 문화자산이 있다.

문화에는 우열이 없다. 전문가 영역의 전유물도 아니다. 어떤 것이든 확장하면 문화 아닌 것이 없다. 주변에 널브러진 현상도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으로 다듬느냐에 따라 문화가 되기도 하고 일상이 되기도 한다. 길거리의 돌맹이도, 나무 한 그루도, 허름한 가옥도, 의미와 가치가 부여되면 문화자산이다. 생업도 마찬가지다. 의미와 가치의 옷을 입히면 문화가 된다.

상상력이 경쟁력인 시대다. 감성을 수익으로 전환하는 세태다. 고창의 역사와 문화는 질 좋은 상품이며 블루오션이다. 고창군이 치유문화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왠지 필자가 보았던 오스트리아 운전자의 모습을 고창인에게서 다시 보게 될 것 같다. -끝-

## 성내면 이장단협, 자원순환사회 실천결의



고창군 성내면 이장단협의회(회장 김진열)가 지난 3월25일 청정 고창의 자연을 보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원순환사회 실천결의문을 낭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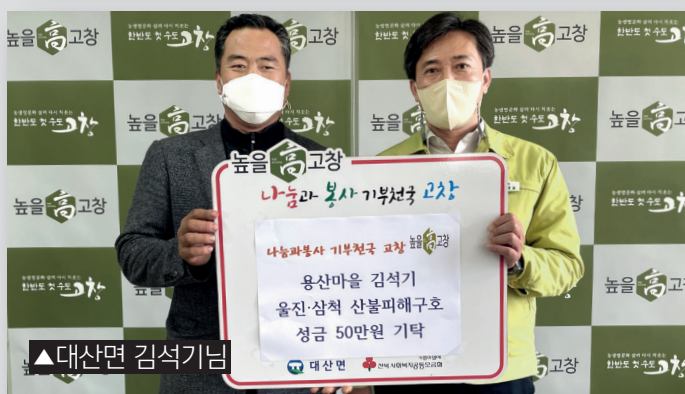
주민들이 실천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올바른 분리배출과 1회용품 사용안하기 등 불필요한 것은 줄이고(Reduce), 한번 더 사용하고(Reuse), 올바르게 재활용하는(Recycle) 자원순환 널리 퍼뜨려 함께 실천하기로 했다.

자원순환사회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이장님들이 먼저 실천하고 주민 교육을 통해 자원순환사회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성내 이장단협 김진열 회장은 “자원순환 사회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성내면 주민들의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마을에서 이장들이 솔선수범해 지속가능한 성내면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봄날 새싹이 자라듯 희망이 움트길” 고창군민, 강원·경북 산불피해극복 온정 나누기 이어져



‘나눔과 봉사, 기부천국’ 고창군민들이 강원·경북지역 산불 피해극복에 소중한 손길을 더하고 있다. 높을고창물에 입점한 149개 업체가 1000만원 상당의 성금과 물품을 기탁해왔다. 높을고창물 입점자협의회 이종현 회장은 “앞으로도 항상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고 온정이 느껴질 수 있도록 높을고창물 입점자는 모두가 사회공헌(ESG)경영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14개 농업인단체로 구성된 농업인단체 고창군협의회도 “강원지역 산불 피해극복에 힘써달라”며 성금 570만원을 기탁 했다. 최종업 회장은 “이번 성금이 갑작스러운 대형산불로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받고 있는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회복과 산불피해지역의 구호·복구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고창군여성단체협의회, 대산면민회, 대산면 용산마을 김석기 이장, 신림면 주민자치위원회도 각각 100만원, 무장면 금정마을도 마을주민들이 모은 소중한 성금을 기탁하며 강원·경북지역의 조속한 산불 피해복구를 기원했다.

## 해리면 이웃돕기 온정의 손길 잇따라



고창군 해리면에서 지난 3월24일 이장단협의회(회장 최종복), 동호어촌계(계장 이길연), 농촌지도자회(회장 이기수), 황토바다 대표 최은호, 화산마을 이장 이계원씨가 각각 이웃돕기 성금 50만원씩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해리면지역사회협의체를 통해 특화사업인 밑반찬 나눔행사 등 관내 홀몸어르신 등 소외계층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또 이날 해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한성, 문인규)는 거동이 불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 10세대를 선정해 보행보조기를 전달했다.

문인규 해리면장은 “해리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나눔과 봉사를 몸소 실천해오고 있는 여러 단체 및 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해리면이 더욱 더 훈훈한 동네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신림면 다목적체육관 문열어

신림면민들의 숙원사업인 다목적 체육관이 드디어 문을 열었다. 지난 3월28일 고창군수와 고창군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기관사회단체장, 신림면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림면 다목적체육관’ 개관식이 열렸다.

신림면 다목적체육관은 신림면 무림리 64-3번지 일원에 지어졌다. 실내체육관과 작은목욕탕 등을 갖췄고, 각종 생활체육 프로그램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 성송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떡케이크 전달



고창군 성송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3월15일 홀로 사는 어르신의 생신을 맞아 떡케이크를 전달하는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사업을 진행했다.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가족과의 만남이 어려워지면서 우울감과 상실감이 커지는 가운데 저소득 홀몸 어르신을 위해 떡케이크를 직접 전달하며 따뜻한 이웃의 온정을 나누고 있다.

황일선 성송면장은 “뜻깊은 자리를 함께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신 성송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면서 “홀로 계신 어르신에게 작게나마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7

## 무장면 조치마을, 농약병·페비닐 모아 이웃돕기

무장면 조치마을 주민들이 지난 3월17일 무장면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농약병과 페비닐 판매수익금 28만원을 기탁했다.

무장면 조치마을 주민들은 농약병과 페비닐을 수거해 모은 수익금은 물론, 매년 정기적인 기부로 이웃과 더불어 함께하는 나눔과 봉사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조치마을 정재환 이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 및 환경정비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민공동체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군이 보증하는 최고의 맛과 품질”  
**높을고창몰 4월의 업체소개**

**「고창황토복분자영농조합법인」  
 동판지팔차**

“부종에 효능이 좋은 팔과 천연 인슐린으로 알려진 돼지감자를 혼합해 만든 액상차입니다. 고창군 황토밭에서 자란 팔과 돼지감자를 정성껏 수확해 액상으로 추출하면서 맛과 향이 풍부하고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해 품질을 높였습니다”

**대표 강영주**



**「꿀단지」  
 꿀고구마**

“갓 캔 햇꿀고구마는 밤고구마와 비슷합니다. 여기서 큐어링(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 숙성시키는 과정)을 거쳐 고구마의 상처가 치료되고 저장성이 올라갑니다. 또 당도는 더욱 올라오고 구웠을 때 훨씬 촉촉하며 오래도록 보관이 가능합니다”

**대표 김민상**



**「토굴발효」  
 발효식초 선물세트**

“토종발효균을 활용해 토굴에서 발효시킨 식초입니다. 복분자화이트식초, 토굴발사믹식초는 유럽의 포도 발사믹을 능가하는 맛과 기능성을 갖추고 ‘한국형 발사믹 식초’로 글로벌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 김상관**



**「산슬식품」  
 두릅**

“독특한 향과 맛으로 산채의 제왕이라 불리는 두릅은 봄철을 대표하는 산나물입니다. 씹쌀한 맛을 내는 사포닌 성분이 혈액순환을 돕고, 혈당을 내리고 혈중지질을 낮춰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 오표근**



**「꽃다락」  
 꽃과 다육이를 이용한  
 원예치료 체험**

“30여년간 다육식물 가꾸기와 꽃농장경험으로 고인돌학습원의 아름다운 경관 속에서 꽃과 다육이를 이용한 여러 수업(다육미니정원만들기, 드라이플라워액자 만들기, 꽃꽂이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 임나영**



**「로쉬치즈」  
 수제요구르트 3종**

“화학비료,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5만평의 목초지를 운영해 홀스타인 젖소 200두가 양질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택배는 당일생산 당일배송을 원칙으로 아이스팩을 넣어 최대한의 신선도를 유지하며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표 정순화**





## 고창군 어린이집연합회, 자원순환사회 구축 동참



고창군 어린이집연합회(회장 최은미)가 지난 3월17일 고창군과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을 통해 고창군과 어린이집연합회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의 자연을 보전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고창군 어린이집연합회 최은미 회장은 “올바른 분리배출과 재활용 활성화, 폐기물 감량에 기여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며 “각 어린이집에서도 미래세대인 어린이들에게도 교육을 통한 자원순환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데 함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4차 산업혁명 내가 이끈다”

## 고창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직업체험



고창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사단법인 전북남부파라미타청소년협회)가 지역 청소년들에게 인기있는 직업체험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3월9일에는 드론 조종법을 배우는 ‘날아라! 드론 체험’에 함께 했다. 또 ‘나는 웹툰 작가’에 참여해 드로잉 기술부터 스토리, 연출, 웹툰 제작 시 이용하는 어플 활용법 등의 노하우를 배우고 있다.

앞서 발렌타인데이인 2월14일에는 초등생 40명이 선운교육문화회관에서 초콜릿 만드는 직업인 쇼콜라티에 체험 ‘연유파베 초콜릿 만들기’에 참여했다. 이외에도, 올해부터는 청소년수련관 체육관에서 고창군체육회와 연계한, 배구, 풋살, 배드민턴, 체조 등 각종 생활체육 프로그램에도 함께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한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여성가족부와 전라북도 및 고창군이 지원하는 방과후 종합 서비스로, 올해부터는 초등 4~6학년 2개반으로 운영중이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로, 상시 모집하며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은 선운교육문화회관 2층을 방문하거나, 전화 564-1318로 문의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 고창군가족센터,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고창군가족센터가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 외국인이 언어 소통문제로 인한 지역 생활적응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역량강화 지원사업과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사업은 한국어 능력 향상으로 결혼이민자의 원활한 일상생활 의사소통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또 자녀의 올바른 양육과 취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어시험 준비반(한국어1단계~4단계)’을 운영하고 있다.

또 센터에선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초급·중급반 1단계·2단계 과정을 온라인 화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교육 이수자는 체류허가와 영주권·국적 부여 등 이민정책과 연계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어교육 신청 및 문의

063-561-1366 (<https://gochang.familynet.or.kr>)



# 대한노인회 고창군지회, 제19대 탁정연 회장 취임



제19대 고창군 노인회장에 탁정연 수석부회장이 취임했다. 대한노인회 전북 고창군지회는 3월31일 대한노인회 고창군지회 3층 회의실에서 제17,18대 정기수 회장 이임식과 제19대 탁정연 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신임 탁정연 회장은 “20여년간 지회를 위해 봉사해왔던 경험과 지혜를 살려 전국 제일의 노인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회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회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마지막 불꽃을 태우겠다”고 밝혔다. 탁정연 회장은 대산농협 조합장, 바르게살기운동 고창군회장, 고창 라이온스클럽회장 등을 역임했다. 2005년에는 제21회 고창군민의장 공익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임하는 정기수 회장은 그간 각 마을 경로당 활성화에 노력했고, 특히 노인회관 신축 등 지역 노인들의 배움터 마련에 각별히 신경써 왔다.

# (사)고창군 귀농귀촌협의회, 제8대 최경심 회장 취임

“화합과 봉사로 지역주민과 하나되는 귀농귀촌 1번지 고창 만들 것”

사)고창군 귀농귀촌협의회가 지난 3월15일 뉴타운커뮤니티센터 2층 강당에서 귀농귀촌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취임식을 열었다. 제7대 유현종 회장이 이임하고, 제8대 최경심 회장이 취임했다. 고창군 귀농귀촌협의회는 2012년에 설립돼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지역민과 함께하는 동아리활동, 재능기부, 멘토활동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 최경심 신임회장은 “귀농귀촌인들과 지역주민이 하나가 돼 지역발전과 귀농귀촌 1번지의 명성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재가장기요양기관 이렇게 이용하세요

집에 있으면서 신체적, 정신적인 이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어르신과 노인부양가정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해 드립니다.

## 이용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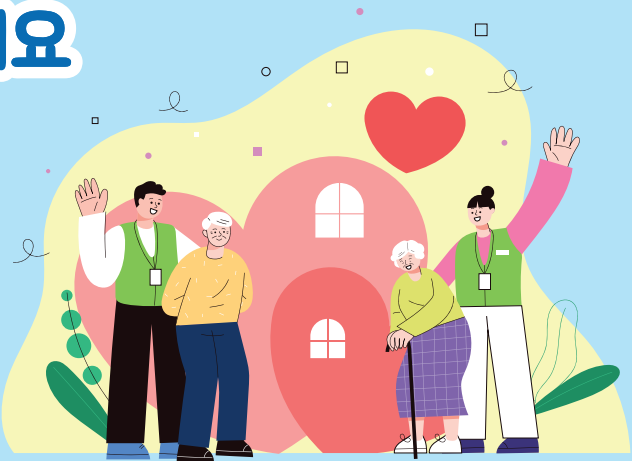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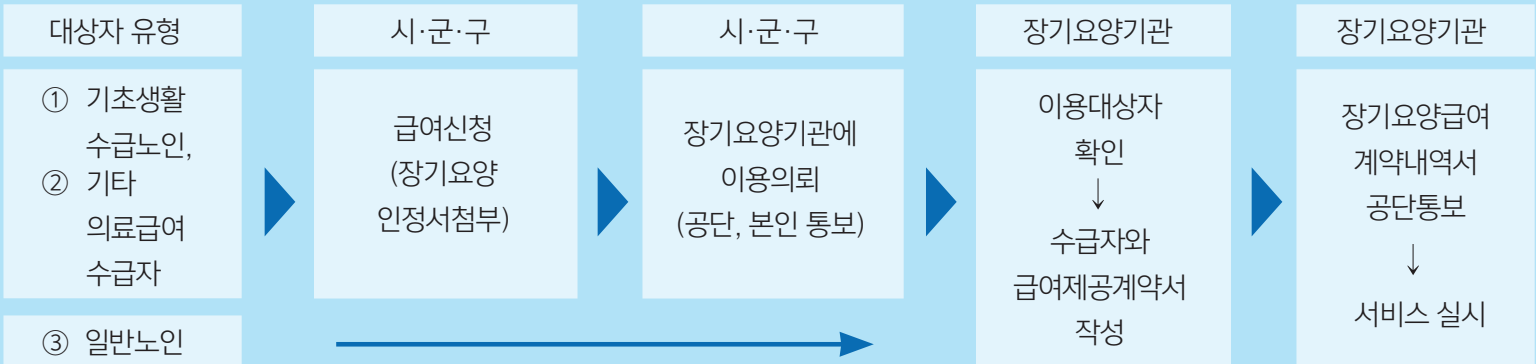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이용서비스

·주야간 보호, 방문요양·목욕, 복지용구 구입또는 대여 등 각종용품 지원

## 이용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신청서’ 접수·심사 후 고창군장기요양기관 이용





## 4월 고창의 인물 허금파



신재효 선생 고택

\* 협률사 : 1902년 서울에 세워졌던 우리나라 최초의 옥내극장

\* 참고문헌 : 「향토문화전자대전」, 「고창의 인물」,  
허금파 후손 송상기씨 증언에 의함

허금파(1866~1949)는 대한제국기에 김세종 문하에서 판소리를 공부하여 진채선(陳彩仙)에 이어 여자 판소리 명창의 선구자가 되었다.

신재효(申在孝)선생으로 부터 판소리의 지도를 받아 대명창이 되어 고종 때 크게 이름을 떨쳤다. 허금파 명창은 경북 김천에서 고창으로 이주하여 활동 하였다. 허금파는 1900년 광무대(光武臺) 협률사(協律社, 우리나라 최초의 옥내극장)공연에 참가하였고, 1903년 원각사 시절 창극「춘향전」의 월매역으로 인기를 얻었던 때 예술 활동이 절정에 이르렀다. 특히「춘향전」가운데 ‘옥중상봉’ 대목이 더늠(장기) 이라 한다. 그러나 원각사 폐쇄 이후에는 활동을 접고 가정에 묻혀 살았다. 허금파는 딸 2명 외에도 아들 하나를 두었으며, 그 후손들이 고창에 살고 있다.

허금파의 묘소는 고창읍 월곡리 산108-1번지에 있다.

## 고창군 일자리 지원 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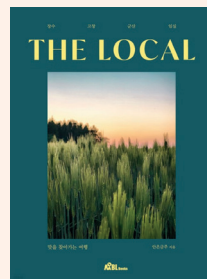
더 좋은 일자리, 더 많은 일자리 통해 구직자와 구인업체 연결, 맞춤형 취업 지원서비스

| 연번 | 업체명          | 인원 | 모집직종                       | 근무조건  | 마감일  | 근무지 |
|----|--------------|----|----------------------------|---|------|-----|
| 1  | 석정레저 주식회사    | 1  | 락커미화원<br>(고객서비스)           | 연봉 / 2,700만원<br>주6일근무(2교대.일9시간근무)<br>조출: 06:00~16:00<br>후출: 11:00~마감시 | 채용시  | 고창읍 |
| 2  | 대신철물건재       | 1  | 경리사무원<br>(매입매출담당)          | 시급 / 9,160원<br>주6일근무<br>월~금 08:00~17:00<br>토 08:00~12:00              | 5.10 | 고창읍 |
| 3  | 석정웰파크병원      | 1  | 여자청소원                      | 시급/ 9,160원<br>주6일근무<br>(추가근무수당지급)<br>월~금 07:00~16:30<br>토 07:00~12:00 | 채용시  | 고창읍 |
| 4  | 지경 영농조합법인    | 2  | 납품배송직<br>(달걀납품)            | 월급/ 230~250만원<br>주5일근무: 07:30~17:30<br>(배송직 경력자 우대)                   | 채용시  | 고수면 |
| 5  | 동호레저(주)      | 1  | 골프장전산담당<br>(네트워크, 홈페이지관리등) | 연봉/ 2,400~3,000만원<br>주6일근무: 탄력적근무제<br>전산관련자격증필수                       | 채용시  | 심원면 |
| 6  | 대일하이텍(주)     | 1  | 전기공사직원                     | 월급/ 200만원<br>주5일근무: 09:00~18:00<br>(전기기능사자격증, 전기공무관련경력자우대)            | 채용시  | 아산면 |
| 7  | 대경스틸(주)      | 1  | 경리사무원(남)                   | 연봉 / 3,300만원<br>주6일근무: 08:00~18:00<br>(격주토요일근무)                       | 4.30 | 흥덕면 |
| 8  | 대경스틸(주)      | 1  | 용접원                        | 월급/ 300만원이상<br>(면접후 조정가)<br>주6일근무: 08:00~18:00<br>토요일 격주근무            | 채용시  | 흥덕면 |
| 9  | (주)온국 농업회사법인 | 5  | 생산직<br>(제품생산및포장)           | 시급/ 9,160원<br>주5일근무08:30~17:30<br>(기타수당.출근수당.만근수당)                    | 채용시  | 부안면 |
| 10 | 고창서해안 복분자    | 3  | 단순근로종사원<br>(술생산)           | 월급 / 200만원<br>주4일근무: 08:00~17:30                                      | 4.20 | 신림면 |

구인, 구직자 개인별 상담 및 DB 구축/취업 알선에 따른 구인처 정보 제공/  
일자리 상담\_상생경제과 일자리창업팀(063-560-2366)

## 사서추천, 이달의 도서

### The Local | 장수 고창 군산 임실



The Local | 장수 고창 군산 임실  
안은금주 지음/  
MBL Books/ 2022

군립: 981.1902-안67ㄷ

지금까지 지역 소개 도서들은 조금 촌스럽고 다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해왔다면, 이 책으로 그 편견을 단번에 깰 수 있을 것이다. 한 권의 잡지를 보는 듯한 구성과 색감, 생생히 살아 움직이는 듯한 사진들은 지금 당장 사진 속 장소로 떠나고 싶게 만들고, 지역 주민만 몰래 알고 있는 알찬 맛집들을 야무지게 소개해 주는 보물 같은 책이다. 특히 고창군편에선 향토사학자 이병렬 박사와 고창군청 양희진 수출마케팅팀장이 자문을 맡았다.

저자소개 - 안은금주

로컬 콘텐츠 기획사 빅팜컴퍼니(주) 대표이자 식생활 소통 연구가. 고창군 한반도 첫수도 고창밥상, 임실군 치즈너리 투어, 군산시 보리너리 투어, 평창군 김치너리 투어 등 10년 간 지역의 식문화를 발굴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상품 개발과 이를 연결한 컬리너리 투어를 설계했다. 여러분야 전문가들의 지식 교류의 장으로 어른들의 인생학교 '더 라이프 스쿨'의 장수, 평창, 안동, 고창 캠퍼스를 운영했다.



## 한반도 첫수도 고창은 본동 유채꽃 세상

유채꽃이 고창 들판을 노랗게 물들였습니다. 동백이 한창인가 했더니 어느새 유채꽃과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샛노란 유채꽃은 선운산, 방장산의 연분홍빛 산벚꽃과  
어우러지고, 푸른 바다와 노란 유채꽃 물결은 원색의 대조를 이뤄 장관입니다. 봄바람에  
살랑이는 모습이 마치 손짓하는 노란 손길 같기도 합니다. 끝 간 데 없이 이어지는 싱그러운  
초록빛의 청보리밭도 그 자체로 하나의 경관이 됩니다.



## 고창 녹두꽃 소리회, 모양성 전국국악경연대회 민요부문 ‘대상’

‘고창(高敞)성에 높이 앉아 나주풍경을 바라보고~’



고창지역 국악모임 ‘녹두꽃 소리회’가 ‘제13회 고창 모양성 전국국악경연대회’ 대상을 수상하며 고창 고을의 흥 전도사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반상률 회장을 비롯한 녹두꽃 소리회 16명은 지난 4월2일 고창 동리국악당에서 열린 모양성 전국국악대회에서 ‘호남가’로 출전해 대상을 수상했다. 남녀 20명의 고창주민들로 구성된 소리회는 매주 유교문화체험관에서 김옥진 전문강사의 지도아래 북과 장구, 전통민요 등을 배우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반상률 회장은 “아는 만큼 쉬워지고 배울수록 빠져드는게 국악이다”며 “토속민요는 사라져 버린 옛 공동체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무형의 문화유산으로서의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모든 군민들이 관심갖고 배우고 널리 부르면 좋겠다”고 말했다.